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작가의식

류해춘*

- 차례 -

1. 머리글
2. 남명의 삶과 선비정신
 - 2.1. 도학(道學)의 유생(儒生)
 - 2.2. 염퇴(恬退)의 유일(遺逸)
 - 2.3. 산림(山林)의 유현(儒賢)
3. 문학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
 - 3.1. 자아성찰(自我省察)과 심성수양(心性修養)
 - 3.2. 현자피세(賢者避世)와 출처의식(出處意識)
 - 3.3. 현실비판(現實批判)과 애민정신(愛民精神)
4. 마무리

[국문 초록]

남명 조식(1501-1572)은 16세기 산림의 처사(處士)로서 선비정신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는 유학의 실천을 본업으로

* 성결대학교 교수, rhc0315@hanmail.net

하면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지식인을 의미한다.

이 글은 도학(道學)의 선비정신으로 무장하여 평생을 유생(儒生)과 유일(遺逸)을 거쳐 유현(儒賢)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간 남명 조식과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명의 일생은 첫째, 도학(道學)의 선비인 유생(儒生)으로서의 시기(1세-37세), 둘째 염퇴(恬退)의 선비인 유일(遺逸)으로서의 시기(38세-60세), 셋째 산림의 처사(處士)인 유현(儒賢)으로서의 시기(61세-72세)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연구에서 놓친 남명의 자기완성을 위한 학문경향과 선비정신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작가의식의 양상을 선명하게 설명하여 줄 것이다.

남명의 문학세계는 재도지기(載道之氣)의 문학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문학이 뜻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문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심성을 기르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도구라고도 보았으며, 다른 선비들처럼 문학이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인해 사람이 스스로 그릇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남명이 유학자로서 추구했던 일생은 문학작품 속에서 1)자아성찰과 심성수양, 2)현자피세와 출처의식, 3)현실비판과 애민정신 등의 작가의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남명은 재야의 정치인으로 산수자연에서 민본정치인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애민정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남명의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작가의식은 도학의 인격을 갖춘 선비정신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 작가의식, 자아성찰, 심성수양, 현자피세, 출처의식, 현실비판, 애민정신

1. 머리글

남명 조식(1501-1572)은 조선중기 재야의 선비로서 명망이 높았으며 학문과 덕행이 높아 선비정신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선비는 조선시대 유학의 실천을 본업으로 하면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지식인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한국의 선비들은 지식인으로서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역사의 주역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었으며, 백성을 교화하는 교육자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현실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는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도학의 유생으로서 심성수양에 필요한 학문을 연마하고 수련하다가, 성장하여서는 벼슬자리에 나아가거나 산림에서 선비가 되어 출처하는 의리를 내세우면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문을 하는 등 현실정치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년에는 다시 자신의 거처에서 강학(講學)을 하면서 애민정신(愛民精神)을 실천하는 길을 큰 덕목으로 여겼다. 남명은 16세기 성리학을 수용하여, 한 차원 높은 삶의 철학으로 승화하고, 조선 고유의 사상으로 이끌어간 대표적인 선비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의 선비정신으로 무장하여 평생을 유생(儒生)과 유일(遺逸)을 거쳐 유현(儒賢)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간 남명 조식의 문학세계와 그 현실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남명 조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 남명과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남명학파의 존재와 그 활동²⁾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역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남명관련 학술연구소가 다수 생겨나

1) 이 글에서 유생(儒生)은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라는 의미이며, 유일(遺逸)은 산림에 조용히 물러나 있는 선비에게 조정에서 천거하여 벼슬을 주려는 빼어난 선비라는 의미이고, 유현(儒賢)은 유학에 정통하여 언행이 올바른 선비라는 의미이다.

2) 이상필, 「남명학파의 남명사상 계승양상」, 『남명학연구』 9집, 경성대남명학연구소, 2001.

면서 남명사상과 그를 계승한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문학, 사학, 철학, 사회과학 등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는 남명학과 관련된 문인과 학문에 대한 연구업적을 1991년부터 논문집³⁾으로 출판하였고, 퇴계학연구소와 남명학연구소는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룩한 성과물을 출판하기도 하였다.⁴⁾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1986년 전병윤의 논문⁵⁾과 1997년 정우락의 논문⁶⁾과 2008년 전재강의 논문⁷⁾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어 선행연구를 대신하기로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연구사를 검토한 앞의 세 편의 논문 이전이나 이후에 나온 논문도 이 글의 이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각주나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남명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학의 연구에서 사학과 철학의 연구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비라는 인간상을 정립하는 시각에서 남명학과의 연구까지 남명학의 연구가 발전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남명의 일생을 유생(儒生), 유일(遺逸), 유현(儒賢) 등의 세 단계로 나누고 문학에 나타난 선비정신과 현실의식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남명집』(南冥集)⁸⁾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남명학연구소에 간행한 『남명집』(南冥集)⁹⁾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는 1991년 『남명학연구』 제1집을 간행하기 시작하여 2019년 3월까지 『남명학연구』 61집을 간행하여 남명학의 연구에 체계적인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4) 경북대 퇴계연구소편, 『퇴계학과 남명학』, 지식산업사, 2001.

5) 전병윤, 「남명의 사상과 문학연구」, 『한문학연구』 3집, 계명한문학연구회, 1986.

6) 정우락, 「남명문학의 의미표출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연구」, 경북대대학원 (박사), 1997.

7) 전재강, 「남명문학 연구의 문제와 전망」, 『우리말글』 42, 대구어문학회, 2008.

8) 『南冥集』, 민족문화추진회, 1989.

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南冥集』, 한길사, 2001.

2. 남명의 삶과 선비정신

남명 조식(1501-1572)은 일생 동안 선비정신을 실천한 재야학자인 산림처사로서 명성을 떨친 유학자이다. 남명의 일생은 첫째, 도학의 선비인 유생(儒生)으로서 자기성찰과 심성수양을 하는 시기, 둘째 조정에서 벼슬을 추천하는 선비인 유일(遺逸)로서 제자들에게 강학하고 교육을 시키며 출처의식을 실행하는 시기, 셋째 유학에 정통하여 언행이 바른 선비인 유현(儒賢)으로서 그의 학문과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 등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명의 삶과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남명의 일생을 정리한 대표적인 글은 학문의 대전환, 산해정 시대, 뇌룡정 시대, 산천재 시대 등으로 구분한 글¹⁰⁾과 수학기, 모색기, 정립기, 온축기 등¹¹⁾으로 삶의 굴곡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남명의 삶을 선비정신의 성장과 변화를 기준으로 3기로 구분하였다. 남명의 일생은 첫째 도학(道學)의 선비인 유생(儒生)으로서의 시기(1세-37세), 둘째 염퇴(恬退)의 선비인 유일(遺逸)로서의 시기(38세-60세), 셋째 산림의 처사(處士)인 유현(儒賢)으로서의 시기(61세-72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기존의 연구에서 놓친 남명의 자기완성을 위한 학문경향과 선비정신의 변화를 잘 설명하여 줄 것이다. 남명은 과거를 포기한 후에 유일로 관직을 추천받아도 출처의식에서 절의정신을 강조하며, 쉽게 벼슬하지 않는 재야의 선비로서 출처의식을 확실하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출처의식으로 남명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1),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등과 함께 유현(儒賢)이 되어 조선시대를

10) 최석기, 『천왕봉처럼 우뚝한 남명의 정신세계』, 『南冥集』,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1, 33-38면.

11)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26면.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남명은 인세홍진(人世紅塵)이 난무하는 고약한 시대의 현실정치를 맞이하여 산수자연(山水自然)과 함께 살아가는 재야의 선비로서 지리산처럼 우뚝 솟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1. 도학(道學)의 유생(儒生)

사대부의 가문에서 성장한 남명 조식(1501-1572)은 어린 시절을 가족들과 함께 가학(家學)으로 유학을 공부하며 생활하였다. 아버지의 벼슬자리를 따라다니며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學), 수학(數學), 병법(兵法) 등을 두루 익혀서 안목을 크게 넓혔다. 이 장에서는 남명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거쳐 유생으로서의 살아가며 과거시험에 뜻을 접은 37세까지의 인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도학(道學)의 유생(儒生)으로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다.

남명은 외가인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문과에 급제한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고, 15세(1515)에는 아버지의 벼슬을 따라 서울과 단천(端川) 등지에 옮겨 살면서 유가경전과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병법 등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 남명 조식이 처음부터 벼슬자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 한양 동부의 연화방(蓮花坊)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이윤경(李潤慶, 1498-1562), 이준경(李浚慶, 1499-1572) 형제와 친교를 맺고, 18세(1518)에 성수침(成守琛, 1493-1564)과 성운(成運, 1497-1579) 등과 교류하면서 서울 근교의 산사에서 독서를 하였으며, 19세에는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가 일어나 사림의 영수인 조광조(趙光祖, 1482-1520)와 함께 숙부인 조언경(曹彦卿, 1487-1521)도 함께 연루되어 희생을 당하였다.

다음 해에는 특별히 실시한 과거에 응시하였고, 20대 초반에서 30대 이후까지 과거에 응시했으나, 문과회시(文科會試)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문장수업을 반성하였고, 25세(1525) 때에 남명은 산사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다가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두었다. 이때부터 남명은 성인을 배우겠다는 학문에 뜻을 세워 경(敬)과 의(義)의 두 글자를 함께 지키면서 수양과 의리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 시기부터 남명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인 위인지학(爲人之學)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시절을 반성하며, 자아성찰을 위한 위기지학의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시기는 도학을 배우는 유생으로서 과거를 위한 위인지학과 자아성찰을 위한 위기지학을 함께 공부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시절로 정리할 수 있다.

남명은 25세 때에 『성리대전』을 읽다가 노재(魯齋) 허형(許衡, 1209-1281)이 “이윤(伊尹)에 뜻을 두고 안자(顏子)의 학문을 배워, 벼슬길에 나아가면 큰일을 이룩하고 초야에 있게 되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대장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¹²⁾라는 말에 깊이 깨달아 위기지학(爲己之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다시 25세까지의 수학기(修學期)와 26세에서 37세까지의 성장기(成長期)로 나눌 수 있다. 25세까지의 수학기는 유생으로서 위인지학인 과거공부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26세부터의 성장기에는 유생으로서 위기지학과 심성수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남명은 26세 때에 부친상으로 낙향하여 삼년상을 마치고 이때부터 삼가의 뇌룡정(雷龍亭)과 계부당(鷄伏堂) 그리고 의령의 자굴산(闇岫山) 등지에서 독서를 하였다. 30세에는 김해로 이주하여 김해의 산해정(山海

12) 『南冥集』4, 『행장』(行狀), 543면. 年二十五, 偕友人肄業於山寺, 讀性理大典, 至魯齋許氏語有曰, 志伊尹之志, 學顏子之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丈夫當如此, 先生於是, 惕然警發, 忙然自失, 始悟從前所趣之非, 而古人所謂爲己之學者, 蓋如此也, 遂喟然發憤, 竟夜不就席, 暹明揖友人而歸, 自是, 篤志實學, 堅苦厲厲, 終日端坐夜, 已達明者累年, 既已博求經傳, 旁通百家.

亭)에서 제자들과 함께 강학을 하면서 과거에도 응시하였다.

31세 때에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남명은 “나이 37세가 되자,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이 관심을 두었던 위기지학의 학문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 언덕을 에둘러 있는 대나무로 띠를 삼아 세상과는 절연을 하였다.”¹³⁾고 한다. 이 시기의 남명은 유생으로서 과거공부에 힘을 쏟으며 도학의 유생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천을 위해 심성수양(心性修養)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도학의 선비인 남명이 처음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가인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소년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고, 과거시험 공부를 하여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과거에 응시했으나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했다. 25세 때에 산사에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위기지학에 뜻을 두었다. 이때부터 남명은 성인을 배우겠다는 학문에 뜻을 세워 경(敬)과 의(義)의 두 글자를 함께 지켜서 수양과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의 남명은 도학을 배우는 선비인 유생(儒生)으로서 자아성찰(自我省察)과 심성수양(心性修養)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2.2. 염퇴(恬退)의 유일(遺逸)

염퇴(恬退)라는 용어에는 16세기 사화기 이후에 출처사이에서 고뇌했던 선비들의 현실인식의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염퇴라는 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에 관한 남다른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염퇴는 선비가 스스로 재주가 부족함을 헤아려서 집이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며, 스스로 학문이 부족함을 헤아려서 심성공부를 익히며 관직에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遺逸)이란 사화기를 거

치면서 출사하지 않고 산수자연과 함께 심성수양과 학문연구에 전력을 다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재야의 선비로서 조정에서 관직을 추천한 선비들을 의미한다.¹⁴⁾ 조정에서는 남명과 같은 염퇴의 유일들에게 벼슬자리를 주어 백성들의 비판을 조정하려고 하였다.

남명에게서 염퇴의 선비인 유일(38세-60세)로서의 시기는 치열한 출처의식을 보여주었던 산해정(山海亭) 시기와 뇌룡정(雷龍亭) 시기가 함께 걸쳐져 있지만 삼가에서 거쳐하던 뇌룡정 시기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뇌룡정의 시기에 남명은 조정에서 내린 벼슬에 대하여 나이와 병을 핑계로 출사하지 않고 현실정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에는 남명의 절의정신과 출처의식을 담고 있다.

김해의 산해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남명은 37세(1537)가 되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하는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성현(聖賢)의 학문에 더욱 매진하였다. 이때부터 남명은 산림에 숨어있는 빼어난 선비인 유일로 조정의 벼슬자리를 추천받았으나 번번이 사임을 하고 있다. 38세 때에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천거하여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3세 때에 그는 이미 학문으로 명망이 높아 경상감사로 왔던 당대의 대학자였던 회재가 편지를 보내 만나 보기를 청했지만 ‘과거시험 응시자의 신분으로 감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¹⁵⁾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였다. 한편 45세인 1545년에는 을묘사화(乙巳土禍)가 일어나 친분이 깊은 이림(李霖, 1501-1546), 성우(成遇, ?-1545), 곽순(郭珣, 1502-1545), 송인수(宋麟壽, 1499-1547)등이 화를 당하는 비운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명은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출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했다.

남명은 45세(1545)가 되는 11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선영에 모시기

13) 『南冥集』4 「행장」(行狀), 543면. 先生年三十七, 始斷棄學業, 一意吾學, 屏居丘園, 結茅水竹之間, 謝絕世故, 蕭然自適.

14) 강정화, 「16세기 유일문학의 특징」, 『동방한문학』30, 동방한문학회, 2006, 219-261면.

15) 『南冥集』, 「答李晦齋」, 2001, 589면 참조. 寧有呈身舉子乎.

위해서 삼가로 돌아왔다. 48세에는 삼가의 토동(兔洞)에 계부당(鷄伏堂)과 뇌룡정(雷龍亭)을 짓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였다. 48세(1548)에는 조정에서 전생서(典牲署)의 주부(注簿), 51세에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등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55세(1555)가 되자 다시 조정에서는 유일(遺逸)로 단성현감(丹城縣監)에 천거하였다. 이 때 남명은 현실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을묘사직소」(乙卯辭職疏)를 올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비가 되었다. 또 「민암부」(民巖賦)에서는 “백성을 물에 비유하고 임금을 배에 비유하여, 물이 노하면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논리¹⁶⁾를 끌어와 민중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민본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남명은 민본정치와 애민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정치상황을 앞에 두고 벼슬자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산수자연과 함께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59세(1559)에 다시 조정에서는 남명을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에 추천하였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벼슬자리에 나아가갈 때와 아닐 때를 철저히 구별하여 출처의식에 절의정신을 강조하였다.

선비가 무도한 시대에 한갓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참된 선비는 그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나 인간 세상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명의 「엄광론」(嚴光論)에서는 그의 유가적 출처의식에 따른 선비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 남명은 절의가 있는 선비로서 합천의 뇌룡정, 계부당, 김해의 산해정 등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강학하는 교육자로서 현실의 패도정치를 왕도정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을묘사직소」를 조정에 올리며, 출처의식을 더욱 철저히 하였다. 남명은 출사하여 경세제민할 자질과 여건을 갖추고도 인세홍진(人世紅塵)을 피해 산수자연으로 물러나 산수자연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며 염퇴恬退의 유일(遺逸)인 선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2.3. 산림(山林)의 유현(儒賢)

남명은 귀거래(歸去來)한 선비처럼 산수자연과 함께 유람하면서도 출처의식과 상소 등으로 전국에 이름을 크게 떨쳤다. 61세에 지리산의 산천재로 이사를 한 후에 남명은 자신이 정립한 세계관을 완성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집의 이름인 산천(山天)은 주역(周易) 대축(大畜) 괘(卦)의 “강건하고 독실하여 밖으로 빛을 드러내고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¹⁷⁾는 말에서 그 뜻을 가져 온 것이다. 이 시기(61세-72세)에 남명은 더욱 철저히 자신의 선비정신을 완성하여 산림(山林)의 유현(儒賢)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다. 산림의 유현이 된 남명은 조정의 현실정치를 비판하며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과 경세제민의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남명의 선비정신은 실천성을 강조하며 의리를 내세우는 것이 그 특성이다. 지리산 아래의 산천재로 이사한 후, 남명은 유생(儒生)으로서 함양한 인격수양과 유일(遺逸)로서의 경험한 출처의식 등을 더욱 가다듬어 정의사상을 더욱 튼튼하고 확실하게 실천하였다. 조정의 벼슬에는 실제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벼슬자리에 천거가 오면 상소나 병을 이유로 조정에 예의를 갖추면서 출사하는 대신에 산림의 선비로서 강학과 제자를 기르는 일에 매진하였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비가 된 남명은 66세(1566) 때에 상서원(尙瑞院) 판관(判官)의 벼슬을 추천받았다. 이 일로 남명은 상경하여 명종(明宗)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벼슬자리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지리산으로 돌아왔다. 67세(1567)가 되자 새로

16) 최석기, 「천왕봉처럼 우뚝한 남명의 정신세계」, 『南冥集』, 2001, 38면.

17) 『周易』, 「大畜」, 剛健篤實, 輝光, 日新其德.

즉위한 선조(宣祖)가 두 차례에 걸쳐 특별히 불렀으나 상소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다음 해인 68세(1568)에는 선조(宣祖) 1년으로 임금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으나 서리망국론을 담은 「무진봉사」(戊辰封事)를 임금에게 올리고 벼슬을 사양하였으며, 69세에는 종친부(宗親府) 전첨(典籤)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70세(1570)에도 임금이 관직을 내렸지만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남명에게 내린 벼슬이 자신의 경륜을 펼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71세(1571)에는 임금이 경상감사를 통해서 음식물을 내려 보내주어 상소로서 사례하였다.¹⁸⁾

이 시기의 남명은 61세에 지리산 밑에 있는 산천재로 이사하고, 더욱 수양과 강학에 힘을 쏟아 산림(山林)을 대표하는 유현(儒賢)으로서의 성장하였다. 그는 고약한 현실정치를 맞이하여 산림의 처사(處士)로 생활하면서 도덕과 학문을 완성하여 유현(儒賢)으로서 애민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당시 큰 포부와 역량을 지닌 선비가 쉽게 벼슬에 나아가 희생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선비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꿈을 실현하는 민본정치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때부터 남명은 재야에서 칼을 찬 선비인 유현으로서 존경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남명의 일생은 젊은 시절 유생(儒生)의 삶을 거쳐서 유일(遺逸)로 벼슬을 추천받으면서 출처의식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만년에는 산림의 유현(儒賢)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처사(處士)라고 불러주기를 희망하였다.

3. 문학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

문학을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긍정과 부정을 함께 지닌 것으로 생각했

18) 『南冥集』,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1, 604면 참조.

다. 남명도 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사람을 황망하게 한다고 문학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였다. 그 내용은 “항상 시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경계(警戒)를 가지고 있었으니, 시인은 의취가 공허하여 크게 학자의 병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를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다.”¹⁹⁾라고 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문장의 수식에 힘쓰는 시인의 글을 배우면, 헛되이 자공심을 지녀 배우는 사람들의 큰 병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남명은 “시를 창작하는 일은 사물을 희롱하다가 뜻을 잃어버리는 좋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신을 몰욕으로 나아가게 해서 무한히 교만한 죄를 증식시킨다고 하였다.”²⁰⁾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남명의 문학관은 문장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숭상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남명은 “간교한 마음을 끊어도 시 좋아하는 버릇이 남아 있어 아름다운 시구를 갖고서 남의 문을 두드린다.”²¹⁾라고 하여 문학을 계속하여 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청향당의 시에 화답하여」(和淸香堂詩)에서 “칠언시와 오언시가 일만 금의 가치가 있건만, 곁에 있는 사람은 한편의 시로만 여기누나.”²²⁾라고 하여 시의 긍정적인 면과 실용성²³⁾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가 일만 금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만 한 편의 시로만 인정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남명이 일만 금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시는 세상과 소통하는 시, 친구와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심성이 표현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

요컨대 남명의 문학관은 문장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19) 『南冥集』, 「南冥先生集序」, 452면 常持詩荒戒, 以爲詩人, 意致虛曠, 大爲學者之病, 故既不喜述作.

20) 『南冥集』, 「答成聽松書」, 嘗以哦詩, 非但玩物喪志, 之尤物, 於植, 每增無限驕傲之罪, 用是廢閣諷詠, 近出數十載.

21) 『南冥集』, 「贈熙鑑師」, 斷盡機心詩癖在, 強將佳句扣人門. 470면.

22) 『南冥集』, 「和淸香堂詩」, 七字五言金直萬, 傍人看作一篇詩. 472면.

23) 윤호진, 「남명의 실용주의 문학관과 그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22집, 2006, 37-70면.

그 자체로 숭상할 것이 아니라는 재도지기(載道之氣)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문학이 뜻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문장이라고 확정하지 않으면서, 문학이 심성을 기르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도구라고 보았으며, 다른 선비들처럼 시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 인해 사람이 스스로 그릇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3.1. 자아성찰(自我省察)과 심성수양(心性修養)

남명은 일생 동안 도학을 실천한 선비이다. 도학(道學)이란 도(道)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유교의 도(道)를 현실사회에 구현하려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성리학자들이 자기정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사용한 이 용어는 유교의 정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남명의 시에는 유생으로서 유교의 도학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통해 실천해보이고 수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문학 갈래로는 장시(長詩)에 해당하는 남명의 「원천부」(原泉賦)에서는 경(敬)의 원천을 중시하는 근본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남명사상의 핵심이 경의(敬義)라면, 이 「원천부」는 그 근원에 해당한다.

경계하노니	戒曰
마음으로 세상만사에 대응하면	心以應事
온갖 물욕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고 돌운다	百感搖挑
학문으로 근본을 삼으면	學以爲本
물욕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惑罔能擾
물욕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근본이 없어지며	可汨則無本
물욕의 감정에 흔들리면 쓰임이 없어지리라	可擾則用熄
경을 통하여 그 근원을 함양하고	敬以涵源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本乎天則²⁴⁾

「원천부」의 마지막 단락인 여기서는 경(敬)의 함양을 제시하며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학의 유생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심(心)과 학(學)이 그것이다. 전자인 심으로서 사물을 대응한다면 물욕이 생겨 마음이 흔들리고, 후자인 학을 근본으로 하면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원천은 ‘근원이 있는 샘물’을 말하고 이 「원천부」의 원천은 남명이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나타난 원두(源頭)와 비슷한 의미로 차용하였다. 여기서 원천은 ‘물이 처음 흐르는 곳’이고 경의(敬義)를 의미²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남명은 근본을 수차 강조하였고, 그 근본에 대하여 다양한 예를 들었다.

남명의 문학에 나타난 유생으로서의 수양하는 정신은 명(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남명이 항상 차고 다녔다는 「패검명」(佩劍銘)에는 유생으로서 수양해야 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敬)이요 內明者 敬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義)이다 外斷者 義²⁶⁾

앞의 「패검명」은 선비의 실천궁행을 강조한 경의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敬)의 수양이고, 밖으로 행동의 결단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의(義)의 수양이라는 것이다. 남명은 유생으로서 평생을 경으로써 마음을 밝히고, 의로써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남명의 이런 태도가 유생으로서의 자아성찰과 심성수양의 덕목이 되었던

24) 『南冥集』1, 「原泉賦」, 478면.

25)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97면.

26) 『南冥集』1, 「佩劍銘」, 480면.

것이다. 다음은 심성수양과 관련이 깊은 시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십년 동안 온 몸에 찌든 때 全身四十年前累
천섬 맑은 물에 다 씻어 버렸네 千斛清淵洗盡休
티끌이 만약 오장 안에 생긴다면 塵土倘能生五內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우리 直今剝腹付歸流²⁷⁾

앞의 시는 남명이 거창의 감악산(紺岳山)에서 친구들과 목욕하면서 지은 것이다. 제1구와 제2구는 작가가 자신이 살아온 40여 년의 삶에 지친 모습을 감악산의 맑은 물에 정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제3구에서 작가는 내 몸과 마음에 티끌과 같은 욕심이 생긴다면, 제4구에서 배를 갈라서 다시 흐르는 물에 욕심과 티끌을 흘려보내고자 한다. 오장 속에 생기는 티끌은 바로 인간사의 갈등과 욕심을 말하며 다시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남명은 물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인격수양의 근원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 했다. 또 “밤새도록 정신집중을 위해서 물그릇을 양손에 들고 수련을 했다.”라고도 한다.²⁸⁾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선비로서 엄격한 자기성찰과 심성수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며 늘 마음이 깨어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가의 풀은 이름 없이 죽어가고 路草無名死
산의 구름은 마음대로 피어나네 山雲恣意生
강물은 끝없는 한을 실어 보내며 江流無限恨
바닥의 돌 뿌리와는 다투지 않는다 不與石頭爭²⁹⁾

27) 『南冥集』1, 「浴川」, 471면.

28) 『南冥年譜』, 「18歲條」, 참조. 嘗以淨盞貯清水, 兩手捧之, 終夜不傾. 참조.

29) 『南冥集』1, 「題黃江亭舍」, 463면.

앞의 시는 남명의 친구인 이희안(李希顔, 1504-1559)의 정자인 황강정사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이다. 남명은 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뇌와 한을 실어 보내고자 했다. 제1구와 제2구에서는 땅에서 자란 무명초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산의 구름이 마음대로 생겨나는 생과 사의 대비를 노래하고 있다. 제3구에서 화자는 인간의 수많은 욕심과 갈등을 실어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제4구에서 강바닥에 튀어나온 돌 뿌리와 다투지 않고 피해서 흘러가는 물인 액체의 유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액체의 부드러움이 고체의 딱딱함을 제압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선비로서의 자기성찰과 인격수양의 모습을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명의 문학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경의(敬義)의 사상은 성리학의 실천적 학풍의 전통을 계승하여 위기(爲己)의 차원에서 수양을 중시하는 경(敬)사상을 이어받고, 경(敬)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인 의(義)를 아울러 강조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남명은 주자가 주장한 거경居敬 이후의 궁리(窮理)의 단계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의(義)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문학에서도 경의(敬義)의 사상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는 법이 없었다. 자아성찰과 심성수양으로 이어지는 남명에게서 경의(敬義)사상은 신념화된 것이었다.

3.2. 현자피세(賢者避世)와 출처의식(出處意識)

현자피세(賢者避世)라는 말은 조선시대 귀거래한 선비들이 현실과 손을 끊고 산수자연에서 세상을 관조하며 현실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수자연은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고 안빈낙도하며 전원생활을 하는 편안한 장소이다. 현명한 사람은 인간세상의 정치현실과 관료생활의

인세홍진(人世紅塵)을 피해서 산수자연에서 대의명분을 찾았다.³⁰⁾

남명은 고금의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인물의 출처를 고려한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일의 공과를 따졌다. 그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출처에 의리와 절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³¹⁾ 남명은 관직에 진출하는 것보다 산수자연인 산림에 은거하면서 후진을 교육하는 강학의 길을 선택하였고, 현실정치를 비판하는 상소(上疏)를 통하여 자신의 출처의식을 밝혔다. 남명은 벼슬자리에 나아갈 때와 아닐 때의 출처의식을 철저히 지켜서 절의 정신이 빼어난 선비로 유명했다. 16세기 조선의 조정에서는 남명처럼 출사하여 경제제민할 자질과 여건을 갖추고도 물러나 은거하는 염퇴의 선비를 선발하여 유일(遺逸)이라고 하는 제도로 벼슬자리에 추천하였다. 선비가 무도한 시대에 한갓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사하는 일은 정도가 아닐 것이다.³²⁾ 참된 선비는 그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나 인간세상을 잊지 않는다. 남명의 「엄광론」에는 출처의식에 따른 선비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옛날 맹자가 제후를 만나 보지 않으면서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펴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한자를 펴기 위해서 여덟 자를 굽히겠는가?”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로서 위로는 천자에게 신하노릇을 하지 않고, 아래로는 제후에게 신하 노릇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비록 나라를 나누어 주더라도 이를 조그만 물건처럼 가볍게 생각하

30) 『栗谷全書』5, 「疏節三」, 참조. 율곡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의 부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유현(遺賢)은 도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름나기를 구하지 않으며, 숨어서는 몸을 깨끗이 하되 세상을 잊지 아니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인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자를 의미하고, 은둔(隱遁)은 청렴하고 굳은 절개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높은 벼슬을 경시하며, 천하가 힘쓰는 영달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홀로 그 몸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자를 의미하며, 염퇴(恬退)는 스스로 재주가 부족함을 헤아려서 심성수양 공부를 익히며, 자기분수를 헤아려서 감히 관직에 나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도명(盜名)은 겉으로는 임금이 부름을 사양하고서 속으로는 바라지 못할 것을 넘겨다보며, 감정을 속이고 행실을 꾸러서 허황한 명예를 구하며, 외모는 담담하되 속마음은 달아 있고 얼굴빛은 엄숙하되, 내면은 나약함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31) 『來庵集』12, 南冥先生病時事跡, 汝等於出處, 組有見處吾心許也, 士君子大節, 惟在出處一事而已.

32) 『論語』, 「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며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품고 있는 포부가 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거워 일찍이 남에게 가벼이 자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용을 잡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희생을 잡는 부역에 들어가지 않고, 왕도정치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패도정치를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자롱이 양털 가죽을 입고 시골에 살면서 스스로 고기를 낚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漢)나라를 위해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았던 것은, 품고 있는 포부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³³⁾

남명은 선비가 현실정치에 맞서서 부패한 정치를 언론을 통해서 임금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은둔의 선비가 아니라 현실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선비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명에게 “당신을 엄자롱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남명은 “아아, 내 어찌 자롱의 기절(氣節)을 감히 바라겠는가? 그러나 자롱은 나와 도가 같지 않으니, 나는 이 세상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의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출처의식을 지녔기에 염퇴의 유일(遺逸)인 남명은 55세에 조정에서 벼슬자리를 추천하여 단성현감(丹城縣監)에 제수하였으나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시기는 1555년 을묘왜변이 일으킨 일본이 침략을 노골화하는 시기여서 국내외적으로 조정의 정치현실이 더욱 어려운 시기였다. 1555년(명종 10년)에 작성한 「을묘사직소」에서 남명은 현실정치에 드러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방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과격하게 상소하여 재야에서 주목을 받는 선비가 되었다.

33) 『南冥集』, 「嚴光論」, 496-497. 昔孟子之不見諸侯曰, 枉尺而直尋, 所不可爲也, 況直尺而枉尋, 豈聖人之道乎, 故士有上不臣天子, 下不臣諸侯, 雖分國如錙銖, 有不屑焉, 彼其所挾者大, 而所辦者重, 未嘗輕與人許已也, 屠龍之技, 不入於櫛庖, 佐王之足, 不踐於伯都, 子陵之羊裘澤中, 自托於漁釣, 終不肯爲漢小屈者, 豈非所挾者大而然乎.

34) 裴紳(1520-1573), 『洛川集』1, 南冥先生行錄, 有問者曰, 先生孰與嚴子陵, 曰惡, 子陵氣節, 其可跛歟, 然子陵與吾不同道, 余未忘斯世者也, 所願學孔子也.

자전(慈殿)께서는 생각이 깊고 성실하시지만 궁중의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아직 유충(幼沖)하시며 다만 선왕의 한 외로운 후사이시니 수천 가지의 천재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어찌 감당하시며 수습하시겠습니까?³⁵⁾

전하의 나라 일은 이미 잘못 되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해가고 하늘의 뜻이 벌써 떠났으며, 민심도 이미 흩어졌습니다. 비유컨대 백 년 된 큰 나무가 속은 벌레가 다 파먹고 진액도 다 말랐는데 망연히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또 언제 닥쳐올지를 알지 못하게 된 지가 오래인 것과 같습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충성되고 듯 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신하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쓸 곳이 없습니다.³⁶⁾

「을묘사직소」에서 남명은 단성현감(丹城縣監)으로 추천되었지만, 불사(不仕)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헛되어 나서 잘못 추천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전하의 나라 일이 잘못되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 버렸고 민심도 이미 이반되었다는 것이다. 남명은 나라의 일이 이미 잘못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하늘의 뜻은 이미 임금을 떠났고 민심도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속이 비어 있고 수액이 마른 썩은 고목에 비유하여 현실정치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

35) 『南冥集』2, 「乙卯辭職疏」, 521면. 慈殿塞淵, 不過深宮之一寡婦, 殿下幼沖, 只是先王之一孤嗣, 天災之百千, 人心之億萬, 何以當之 何以收之耶.

36) 『南冥集』2, 「乙卯辭職疏」, 521면. 殿下之國事已非, 邦本已亡, 天意已去, 人心已離, 比如大木百年虫心, 膏液李枯, 茫然不知飄風暴雨, 何時而至者, 久矣. 在廷之人, 非無忠志之臣, 夙夜之士也, 已知其勢極而不可支, 四顧無下手之地.

에서는 천재지변이라 할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닥쳐올 기세라고 하니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여 남명은 조정에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신하가 있다고 하나 손쓸 겨를이 전혀 없다고 당대의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부패한 현실정치 아래에서는 조정에서 유일(遺逸)로 추천한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처의식은 무도(無道)한 나라에는 출사하지 않겠다는 선비들의 출처의식과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남명의 「을묘사직소」는 대단히 과격한 상소로서 당시의 조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남명은 자신은 현실정치의 부패를 인지 않는 선비로서의 당당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훗날 전하가 왕도의 정치로 국가가 화평하게 된다면 신은 마부의 끝 자리에서 채찍을 잡고 그 마음과 근육의 힘을 다해서 신하의 직분을 다할 것이니 어찌 임금을 섬길 날이 없겠습니까?³⁷⁾

앞의 인용문처럼 남명은 임금의 정치가 정도를 걸어가면 출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여 출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서도 “그러나 조식은 세상을 잊지 않았다.”³⁸⁾라고 하였으며, 정인홍도 「남명선생행장」에서 “은거하였으나 반드시 현실을 살피고자 하였다.”³⁹⁾라고 한 것처럼 세상을 잊지 않은 유학자의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명의 한시에 나타난 출처의식과 그의 선비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절 부서지고 스님 파리하니 산은 옛 모습이 아니고 寺破僧羸山不古

37) 『南冥集』2, 「乙卯辭職疏」, 521면. 他日, 殿下致化於王道之域, 則臣當執鞭於廐臺之末, 竭其心膂以盡臣職, 寧無事君之日乎.

38) 『明宗實錄』19, 「10年, 11月, 庚戌」. 然非果於忘世.

39) 『來庵集』12, 「南冥先生行狀」, 448면, 참조. 隱見必欲相時.

고려왕은 스스로 왕가를 지탱하지 못하였네 前王自是未堪家
 조물주는 지조를 지키는 매화의 일 그르쳐서 化工正誤寒梅事
 어제도 꽃 피우고 오늘도 꽃 피우누나 昨日開花今日花⁴⁰⁾

앞의 시는 지리산 밑에 위치한 산청의 단속사(斷俗寺)에 핀 매화를 두고 읊은 작품이다. 매화는 국화, 대나무, 난초와 함께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꽃이다. 매화는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선비의 절의정신을 표상하는 꽃이다.

단속사의 정당매는 고려말기 정당문학을 지낸 통정(通亭) 강희백(姜淮伯, 1357-1402)이 심은 것인데, 그는 고려가 망하자 지조를 지키지 않고 조선조에서 벼슬을 하였다. 단속사의 정당매는 식물이라 절개의 상징인 꽃을 해마다 피우고 있지만, 이 나무를 심은 주인공은 조선 왕조의 1398년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되어 다른 왕조를 섬김으로써 남명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기구에서 작가는 시간이 흐르자 사찰이 파괴되어 초라한 모습과 함께 변해가는 인정과 자연의 세태를 통해서 세상사의 무상함을 회고하고 있다. 승구에서 작가는 고려왕조가 스스로 자신의 왕가를 지키지 못해서 조선왕조에서 벼슬을 하는 강희백의 절개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남명은 끝까지 지조를 지켜서 출처의식을 뚜렷하게 한 선비인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두 왕조에 걸쳐 벼슬살이를 하는 관료의 변절은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희백이 단속사 뜰에다가 매화를 심은 것은 매화나 절개를 본받고자 했을 것인데 강희백의 변절은 호된 질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구와 결구에서 작가는 정당매가 세인들의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

관없이 매양 꽃을 피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지조를 지키는 매화라면 당연히 꽃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매화는 어김없이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남명은 조물주가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매화를 어제도 꽃 피우고 오늘도 꽃피워 절개를 지키는 일을 조물주가 그르쳤다고 판단하고 있다.⁴¹⁾ 남명은 이 작품을 통하여 자신이 민본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없는 벼슬을 탐하지 않는다는 출처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단속사에 있는 매화나무는 강희백의 증손인 강용휴가 100년 후에 다시 심은 매화나무라고 한다.

당시에 유일로서 함께 추천된 이희안(1504-1559)이 세 번이나 출사한 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⁴²⁾도 남기고 있다. 연산군의 폭정에 따른 연이은 사화 등은 남명의 출처의식과 충절사상에 영향⁴³⁾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남명의 「엄광론」의 내용을 보더라도 남명이 왜 출사하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남명은 엄자릉과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의 시대는 도학의 정치가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에 출사하지 않았다.

남명이 산수자연에 숨어서 유일(遺逸)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한 세상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정치의 비판이었다. 남명은 산수자연을 단순한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명은 자신이 활동했던 김해나 합천, 그리고 지리산 등의 산수자연에 자신이 지닌 내면세계의 현실인식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남명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파묻힌 유일로서 벼슬길을 거부하면서 출처의식에 절의정신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밝혔던 것이다.

41) 변종현, 「남명시에 구현된 그의 정신세계」, 『한국한시연구』20, 2012, 182면.

42) 『南冥集』1, 「聞李愚翁遷鄉」, 467면. 산해정에서 꿈 몇 번이나 꾸었던가, 뺨에 흰눈 가득한 황강 노인의 모습을, 반 평생 동안 금마문에 세 번 이르렀지만, 임금은 만나 뵈지도 못하고 돌아왔지.(山海亭中夢幾回, 黃江老叟雪盈腮, 半生金馬門三到, 不見君王面目來.)

43) 허권수, 「남명시에 나타난 구세정신」, 『남명학연구논총』1, 1988, 131면 참조.

40) 『南冥集』1, 「斷俗寺政堂梅」, 467면

3.3. 현실비판(現實批判)과 애민정신(愛民精神)

남명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출처의식이 엄격한 선비라는 데 일치를 보고 있다. 선비가 학문을 이룬 뒤에는 나라에 덕치가 실행되면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벼슬을 하지 않았다. 남명은 왕도정치가 실현되지 않고 패도정치가 실현되는 16세기 현실정치의 상황에서 출사보다는 산림의 선비로서 유현(儒賢)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현이란 유학에 정통하여 언행이 올바른 선비라는 의미이다. 그는 출처의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이 하되 세상을 잊지 아니하며, 세상에 나아가면 민본정치를 하여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선비의 도리를 실천하려고 준비하였다.

남명은 61세(1561)에 덕산으로 이주해서 산천재를 짓고 더욱 수양과 강학에 힘을 쏟아 유현(儒賢)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큰 포부와 역량을 지닌 선비가 쉽게 벼슬에 나아가 희생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치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꿈을 실현하게 하는 애민정치의 실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의 사회는 훈구척신들이 실정을 야기하여 왕도정치(王道政治)가 아닌 패도정치(霸道政治)가 이루어지고 서리와 아전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부정과 부패는 더욱 심각하여 나라를 거의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관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정도 임금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을 구제하려는 애민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없는 조정에 출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남명이 살았던 16세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남명의 민본 중심의 현실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민암부」(民巖賦)이다. 「민암부」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장시(長詩)에 해당하는 갈래이다. 민암이란 백성의 힘을 나타내며 백성이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民猶水也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古有說也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民則戴君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民則覆國 ⁴⁴⁾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는 발상은 봉건사회인 조선시대의 윤리규정에 의거할 때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명은 “백성은 물과 같다”는 순자(荀子)의 왕제(王制)에 나타난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남명은 “임금을 배에 비유하고 백성을 물에 비유하면서,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듯이, 백성이 나라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 왕권을 교체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작품에서 조식의 민본정신은 서술이 시퍼렇게 빛을 내고 있다. 남명이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은 「무진봉사」(戊辰封事)에서 경세제민의 정책을 망치는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으로 이어진다.

예로부터 권신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기도 하였고, 외척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기도 하였으며, 부녀자와 환관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리(胥吏)가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대부에게 있어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물며 서리에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당한 제후의 국가로서 조종(祖宗)의 2백년의 업적에 힘입어 많은 공경대부들이 앞뒤에서 서로 인솔하여 천한 서리에게 정권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 일은 쇠귀에도 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⁴⁵⁾

44) 『南冥集』1, 「民巖賦」, 478면.

45) 『南冥集』2, 「戊辰封事」, 521면. 自古, 權臣專國者, 或有之, 威里專國者, 或有之, 未聞有胥吏專國如今之時者也, 政在大夫猶不可, 況在胥吏乎, 堂堂千乘之國, 籍祖宗二百

앞의 글인 「무진봉사」에서 남명은 서리가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였기에 중간에서 부정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던 것이다. 백성들은 이러한 세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유랑민이 되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남명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흩어지고 도성에는 온통 서리와 같은 도적들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산림의 유현이 된 남명은 궁궐 안팎의 신하와 서리들의 횡포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비판하였다. 남명은 백성의 입장에서 신하들과 서리들을 비판하여 현실정치의 모순을 개혁하여 경세제민의 애민정치를 꿈꾸며 이룩하고자 하였다.

한시(漢詩)에서도 남명은 정치권의 부패한 권력의 칼날을 무서워하여 침묵하지 않았다. 남명은 가짜가 횡횡하는 정치판을 정확하게 읽고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였다. 하지만 경세제민과 애민사상을 저버리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부(詩賦)나 상소(上疏)를 통해서 남명은 임금에게 현실을 직시하여 어려운 백성과 나라를 구제할 것을 직언하였다.

굶주림을 참는 일은 오직 굶주림을 잇는 일이라 忍飢獨有忘飢事
모두가 백성들 휴식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네 總爲生靈無處休
집 주인은 잠만 자고 전혀 구제하지 않는데 舍主眠來百不救
푸른 산이 저녁나절 시냇물 속에 거꾸로 흐르네 碧山蒼倒暮溪流⁴⁶⁾

앞의 시는 굶주리는 백성의 구제에 대책이 없는 임금을 대비하여 비참한 현실을 찡찡하게 그려내고 있다. 백성은 배고픔을 참으면서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희망이 전혀 없으니 더욱 참담한 상황에 처하고 있

다. 집주인인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정치를 펴하는데 잠만 자고 있다. 당시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서 푸른 산이 저녁나절에 시냇물 속에 거꾸로 비취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곤궁한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쓸쓸하게 하고 있다. 남명은 백성의 이러한 절박한 삶과 그 고통을 사실적으로 노래하고 민본정치가 지닌 경세제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다음의 한시(漢詩)는 남명의 철학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천석이나 들어가는 종을 보거나 請看千石鐘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네 非大扣無聲
어찌하면 두류산처럼 爭似頭流山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으리니 天鳴猶不鳴⁴⁷⁾

남명은 지리산의 우뚝 솟은 형상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지조志操와 의지意志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명은 세상을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으로 지리산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을 대신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상징으로서 지리산을 형상화하고 있다.⁴⁸⁾ 남명은 자신이 살아가는 당대를 온갖 제도적 모순과 문제점으로 인해 어느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어서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시에서 두류산은 지리산이다. 이렇게 고약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탱해줄 큰 기둥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 대상물이 바로 언제나 말없이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리산이었다.

여기서 울지 않는 지리산은 자연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선비인 유

年之業，公卿大夫濟濟先後相率而歸政於僮隸乎，此不可聞於牛耳也。

46) 『南冥集』1, 「有感」, 468면.

47) 『南冥集』1, 「題德山溪亭柱」, 464면.

48) 강구을, 「남명 한시에 있어서 지리산의 의미」, 『한국사상문화』 16권, 2002, 85-102면

현(遺賢)을 상징하고 있다. 심지가 굳고 처신이 발라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선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지리산으로 상징되는 남명의 기상은 어떠한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상징으로 천지를 초월하는 높은 기상과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남명은 민본정치인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정치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남명은 16세기를 애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남명은 당시 현실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 대응책으로 서리망국론과 같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며 철저한 현실인식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남명은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의 여건과 대세를 파악하여 임금에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식은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여 민본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산림의 유현으로서 애민정신의 포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였다.

4. 마무리

남명 조식(1501-1572)은 조선시대 산림의 선비로서 명망이 높았으며 학문과 덕행이 높아 선비정신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선비는 조선시대 유학의 실천을 본업으로 하면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지식인을 말한다. 조선시대 한국의 선비들은 지식인으로서 조선의 사회를 이끌어간 역사의 주역이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었으며, 백성을 교화하는 교육자였다.

남명은 16세기 성리학의 수용을 한 차원 높은 삶의 철학으로 승화하고 조선 고유의 사상으로 이끌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처사(處士)의 선비정신으로 무장하여 평생을 유생(儒生)과 유일(遺逸)을 거

쳐 유현(儒賢)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간 남명 조식의 문학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살펴보았다.

남명의 일생은 첫째, 도학(道學)의 선비인 유생(儒生)으로서의 시기(1세-37세), 둘째 염퇴(恬退)의 선비인 유일(遺逸)로서의 시기(38세-60세), 셋째 산림의 처사(處士)인 유현(儒賢)으로서의 시기(61세-72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남명의 일생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성장과 문학세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분류한 기준이다.

남명의 문학은 재도지기(載道之氣)의 문학관을 반영하고 있다. 문학이 뜻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문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특히 그에게서 문학은 심성을 기르는 더욱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선비들처럼 시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릇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남명이 창작한 문학의 세계는 작가의 사상을 형상화하여 드러내는 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명의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과 사상은 도학의 인격을 갖춘 선비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의식에서는 유학자가 도학의 유생(儒生)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연마해야 하는 ‘자아성찰(自我省察)과 심성수양(心性修養)’에 관한 주제, 염퇴의 선비인 유일(遺逸)로서 지녀야 할 절의정신과 관련한 ‘현자피세(賢者避世)와 출처의식(出處意識)’에 관한 주제, 그리고 산림의 처사인 유현(儒賢)으로서 민본정치(民本政治)의 실현을 꿈꾸며 노래한 ‘현실비판(現實批判)과 애민정신(愛民精神)’에 관한 주제 등을 살펴보았다.

남명은 재야의 작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산수자연에서 자아성찰과 심성수양을 하였으며, 고약한 시대를 맞이하여서는 현실정치에 출사를 피하면서 출처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절의정신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민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정치를 비판하며 애민정신을 작품에 담아

민본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덕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남명은 재야의 유현으로서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애민정치를 위해서 현실정치의 당면한 문제인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남명의 작품에서 지리산은 자연물이기만 하지 않고 가장 큰 선비인 유현(儒賢)을 상징하고 있다.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산수자연은 심지가 굳고 처신이 발라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현이며 큰 선비인 남명의 선비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Literature and Nobility in Nammyeong's Life

Ryoo, Hae-Choon(Sungkyul University)

NamMyeong(1501 - 1572) was highly respected as a priest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and he was highly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figure who showed a good example of the spirit of pre-eminence because of his high level of scholarship and virtue. Sunbi refers to intellectuals who have intellect and personality while taking the practice of studying as their main business in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amine the literary world of Nammyeong who lived as YuHyun(유현) after his life through Confucianism and Nobility, accepted with the spirit of preaching. The life of Nammyeong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age as the confucianism of the Dohak (from 1 to 37 years), the uniqueness of the confucianism (from 38 to 60 old), and as an intellectual of the confucianism(61 to 72 years old).

Nammyeong did not think that literature was the only sentence to convey the meaning, especially to him that literature was a more important excuse for cultivating the mind, and it was not like the other poetry, there was.

The life that Nammyeong pursued as Confucian scholarship is realized in literary works by 1) self-reflection(자아성찰) and cultivation of mind(심성수양), 2) escape of nature(피세현자) and source

consciousness(출처의식), and 3) as criticism of reality(현실비판) and exorcism(애민정신). This chapter discusses these topics. The world of literature created by Nammyeong focuses a lot on revealing the author's philosophy of philosophy to literature. These meteorological and philosophical thoughts in the literature of NamMyeong reflect well the character of Sunbi(선비) who has the character of the doctrine. NamMyeong had a spirit of pre-eminence to participate in real politics in order to realize a virtuous politician.

key word : Confucianism, Self-reflection, Cultivation of mind, Escape of nature, Source consciousness, Criticism of reality, Exorcism

[참고문헌]

□ 단행본

『周易』

『南冥集』, 민족문화추진회, 1988.

『南冥集』,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한길사, 2001.

『栗谷全書』

『來庵集』

『洛川集』

『明宗實錄』

□ 논문

강구율, 「남명 한시에 있어서 지리산의 의미」, 『한국사상문화』 16권, 2002, 85-102면.

강구율, 「남명학파의 한시와 지리산」, 『남명학』 19, 남명학연구원, 2014, 131-177면.

권인호, 「남명 조식의 현실인식과 출처사상연구」, 『남명학연구론총』 3, 1995.

강정화, 「16세기 유일문학의 특징」, 『동방한문학』 30, 동방한문학회, 2006, 219-261면.

변종현, 「남명시에 구현된 그의 정신세계」, 『한국한시연구』 20, 2012, 182면.

송희복, 「남명 조식의 문학사상에 관한 한 고찰」, 2002, 『진주문화』 16, 2002, 35-53면.

신병주, 「남명조식의 학풍과 남명문인의 활동」, 『남명학연구론총』 3, 1995.

윤인현, 「남명의 출처와 문학을 통해 본 선비정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08, 431-472.

윤호진, 「남명의 실용주의 문학관과 그 작품세계」, 『남명학연구』 22집, 2006, 37-70면.

이상필, 「남명학파의 남명사상 계승양상」, 『남명학연구』 9집, 경상대남명학연

구소, 2001.

전병윤, 「남명의 사상과 문학연구」, 『한문학연구』 3집, 계명한문학연구회, 1986.

전재강, 「남명문학 연구의 문제와 전망」, 『우리말글』 42. 대구어문학회, 2008.

정우락, 「남명문학의 의미표출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연구」, 경북대대학원 (박사), 1997.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97면.

최석기, 「천왕봉처럼 우뚝한 남명의 정신세계」, 『남명집』,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1, 33-38면.

최석기, 「남명시에 나타난 도학적 성격」, 『남명학연구』 22, 2006, 71-121면.

허권수, 「남명시에 나타난 구세정신」, 『남명학연구논총』1, 1988, 131면 참조.

접수일 : 2019. 07. 24 총평일 : 2019. 08. 15 게재확정일 : 2019. 08. 21